

임실군 “이달 말까지 오염토양 반출하라”

“광주시, 법적 근거 없다는 이유 들어 등록 수리 주민 생존권 달린 문제 무시한 행태 이해 불가”

임실군은 27일 오염토양시설 변경등록 허가절차 과정에 대한 광주광역시 의 해명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군은 또한 오염토양정화업체와 보상을 위한 그 어떤 협상도 하지 않겠다고 하며, 이달 말까지 오염토양을 반출하지 않는다면 교량을 철거하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재차 밝혔다.

임실군은 “광주시가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등록을 수리했다 고 하지만 임실군 주민의 생존권이 달린 중차대한 문제를 무시한 이윤배 반적인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반

박했다.

이어 “임실군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적법한 등록여건에 맞춰 허가했다는 게 광주시 입장이지 만, 시설 반대 및 불가의견을 수차례 했음에도 묵살당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임실군은 지난 해 4월부터 10월까지 광주시의 협의과정을 통해 토양정화시설 하부에 위치한 옥정호의 상수원 오염과 임실군에서 추진하는 3대 습지 조성사업의 차질이 우려된다는 점, 오염토양 정화시설 주변 농경지와 주민의 피해발생 우려를 들어 불가의견을 수차례에 걸쳐 강력하게

전달했다.

군은 “광주광역시는 2월부터 4월까지 토양정화업체가 전남 곡성군, 나주시, 장성군에 토양정화시설 등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관련 조례 등의 사유로 등록불가 조치를 내렸으면서도 유독 임실군만 등록수리를 해줬다”고 꼬집었다.

임실군은 광주시와 협의한 것은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계획조례에 의거하여 불가결정을 내린 나주시처럼 임실군도 자원순환시설 용도변경 문제 등을 논의한 것이지, 변경등록 문제는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군은 또 토양정화업체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등록과정의 적법성을 주장하고,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면 자진철퇴 의사를 있음을 시사한 것과

관련 “보상을 위한 협상은 없다”고 못박았다.

군은 “현재 문제가 되고있는 토양정화시설은 2차 오염방지시설인 폐수배출시설과 지하수 검사정 설치신고 등 부대시설에 대한 신고수리가 되지 않은 불법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실군이 승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염토양을 반입한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맞섰다.

군은 반입된 오염토양의 시료채취 및 성분검사를 의뢰한 상태이며, 향후 전북도와 함께 강력히 대응하고, 광주시와 새만금환경청에 지속적으로 시설물 규모와 반입토양의 적정여부 점검 위한 협조공문을 보내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심 민 군수는 “지나해 말부터 각종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통해 토양정화업체가 불법 반입된 오염토양을 즉각 회수하고 토양정화업체 등록을 자진 철회하도록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며 “3월 말까지 반입된 오염토양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 현재 D등급으로 판명된 하천 교량을 안전상의 이유로 철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한편 지난 26일 오염토양 정화시설 철거를 위해 설진강수계 11개시군 협의체인 섬진강환경행진협의회는 오염토양정화시설 변경 등록 철회와 시설 철거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냈으며, 같은날 임실군민 및 전북도민 1,500여명은 광주시청을 찾아 임실군의 의견을 무시하고 토양정화업체 등록을 수리해준 광주시장을 상대로 격렬한 항의 집회와 가두시위를 벌였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2019 인생나눔교실 호남권 멘토 모집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병천, 이하 재단)이 2019 인생나눔교실 호남권 멘토링 사업에 참여할 멘토를 모집한다.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공동 주관하는 ‘2019 인생나눔교실’에 함께할 멘토를 2월 28일부터 3월 14일까지 15일간 모집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인생나눔교실’은 지역의 50대 이상 장년들이 인생멘토가 되어 다양한 세대와 만나 세대공감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인문멘토링 사업이다.

전북도, 전남도,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50세 이상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그리고 토론심사를 거쳐 최종 40명의 멘토를 선발한다.

멘토 신청접수는 재단 홈페이지(www.jct.or.kr)와 등기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송효철 기자

공유주차장 조성 한옥마을 주차편의 높인다

전주시, 올 상반기 추진 천주교전주교구 사유지 무상 임대

전주시가 전주한옥마을을 찾는 1000만 관광객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이 소유한 사유지를 무상으로 임대한 후 공유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 총 3억9000만원을 투입해 전주한옥마을 인근의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한옥마을 공유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유주차장 조성사업은 시가 민간 토지를 무상 임대해 주차장으로 조성·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가 부지를 신규 매입해 공유주차장을 조성하려면 1면당 4000만원

~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돼 재정부담이 크지만 부지 무상임대를 통해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에는 전체 예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토지 매입 비용을 절감해 저예산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공유주차장이 조성되는 곳은 완산구 풍남동에 위치한 천주교전주교구청 소유 토지(면적 2,800㎡, 주차면수 85면)로 전주한옥마을과 200m 거리에 위치해 접근성도 용이하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월 토지 소유자인 재단법인 천주교전주교구 유지재단과 부지사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오는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한 뒤 상반기 중 주차장을 완공할 예정이다. 토지 무상임대기간은 7년이다.

앞서, 시는 한옥마을 공유주차장(476면) 뿐만 아니라, 전주천서로·기린로 노상주차장(250면), 대성공영주차장(636면), 풍남초등학교(300면), 국립무형유산원(165면), 남부시장 주차장(335면) 등 한옥마을 인근의 주차장 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시는 향후에도 다양한 민간단체 등과 협의해 저예산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공유주차장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송효철 기자



6살 때 프랑스로 입양됐던 홍금영(47·왼쪽)씨가 아버지를 찾고 싶다는 전북경찰청을 방문해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전북경찰청 제공)

“제 친아버지를 찾습니다”

6세때 프랑스로 입양 40대 여성 도움 요청

1972년 모친이 전북 전주시 예수병원 입원에 치료를 받는 과정에 폐혈증으로 숨겨 익산 기독교아원에서 6세까지 생활했던 입자년 쥐피생 여성 홍금영(48)씨가 자신의 친부를 찾기 위해 도움을 요청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27일 홍금영씨가 전북에 거주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친부를 찾고 싶다는 도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홍씨는 1972년 2월 18일생이며 영등이 위 오른쪽 배 근처에 작고 검은 자국을 태어났고 생후 7일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운명을 달린한 이후 편보수에 양육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으로 당시 예수병원 사회복지과 근무하고 있던 김복혜씨를 통해 기독교아원(현 기독교아원)에 입소했다.

이후 홍씨는 6세가 되었을 당시 홀트 아동 복지회를 통해 프랑스로 입양됐다.

홍씨는 “김복혜씨가 아버지를 찾을 핵심인물이니 이 메시지를 본다면 연락을 주기를 바란다”며 “아버지를 결코 원망하지 않고 있으며 친부를 만나고 싶은 뜨거운 감정을 해소할 수 있게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호소했다.

또 “자신은 12세 때 스페인의 테네리프(Teneriffe) 지역으로 이사를 했고 한국조선소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 해양공학을 전공했고 2005년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노르웨이 선급(DNV GL-Det Norske Veritas) / 선급협회의 검사관으로 약 3년 동안 근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8년부터 현재까지 자신은 독일 함부르크 DNVGL에서 검사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올 여름 한국에 돌아와 조선소에서 근무하길 희망하고 있고 이 기간 동안 자신의 친부와 한국 가족 찾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강석훈 기자



3·1운동 100주년 기념 승강장 제막식이 27일 전주시 신흥중,고등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실시된 가운데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한 박병술 전주시의장, 이기동 시의원, 조재승 신흥고등학교 교장, 시민과 관계자들이 제막식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3·1운동 100주년 승강장 역사현장 들어서

전주시, 신흥중·고교 앞 시내버스 승강장 기념공간 조성 제막식

전주지역 3.1운동의 역사현장인 전주신흥학교 앞 버스승강장이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공간으로 조성됐다.

3.1운동 100주년 기념승강장이 위치한 신흥중·고등학교는 1919년 3.1운동 당시 신흥학교 학생들이 학교 지하실에서 태극기와 독립선언서 등 인쇄물을 만들어 3.1 독립만세운동을 펼쳤던 곳이다.

이날 공개된 기념승강장은 전주지역에서 활동 중인 예술작가가 만든 3.1운동의 이야기를 담은 상징조형 작품이 설치됐다.

또한, 승강장에는 신흥고등학교에서 제공한 3.1운동 관련 역사기록 사진과 시대변천에 따라 변화된 태극기의 모형도 전시됐다.

뿐만 아니라, 이곳 승강장에 도착하는 전주시내버스에는 ‘1919년 3.1운동 당시 신흥학교 학생들이 식민지배에 항거하여 학생운동을 일으킨 곳입니다’라는 안내방송이 송출돼 시민들에게 전주지역 3.1운동의 역사성과 독립정신을 알리는 상징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시는 승강장 내부에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미세먼지를 회피할 수 있도록 공기청정기와 에어커튼 등을 설치했으며 미니도서관과 음수대, 탄소발열의자, 교통카드잔액 표시기, 라디오스피커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춰 복합 쉼터형 공간으로 만들었다.

이외에도,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도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 승강장으로 개선하고 장애인 알림표시벨과 표시등도 설치했다.

시는 3.1운동 100주년 기념승강장이 조성된 장소가 매일 신흥중·고등학교와 기전대, 예수대에 재학생인 학생 등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만큼, 시민들에게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3.1정신과 역사정신은 어느 유적지에만 묻혀 있는 게 아니고 하루의 삶을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버스 승강장 등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담길 수 있다”며, “100년

전 오늘 어린 학생들과 종교인, 지식인 등 시민들이 자유와 평화를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조국의 독립을 외치며 분연히 일어났던 이곳에 세워진 3.1운동 100주년 기념 승강장이 3.1운동의 정신을 되새기고 오늘의 시대정신을 담아 새로운 100년 희망찬 미래를 여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효철 기자

스프링클러 대여 시범 추진

전주시 덕진구청은 ‘전주시 미세먼지 걱정 없는 맑은공기 선도도시’ 추진을 위해 소규모 공사장을 대상으로 스프링클러 대여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최근 미세먼지가 큰 화두가 되어 생활 속 미세먼지 발생원인 중 비산먼지가 큰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덕진구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건설공사장 중 특히, 소규모 건물축조 및 해체현장의 비산먼지 저감 방안을 마련했다.

덕진구청에서는 소규모 공사장 대상 스프링클러 대여사업을 오는 3월 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송효철 기자

송천정보통신학교

졸업장 전수식 열어

송천정보통신학교(전주소년원, 교장 오연호)는 재학생과 학부모,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8회 졸업장 전수식 행사를 했다 고 27일 밝혔다.

졸업식에는 30개교 21명의 중학생, 9명의 고등학생들이 전북교육감으로부터 전적(前籍)학교의 졸업장을 받았으며 특히, 대학 진학 등의 성과를 거둔 2명의 학생과 우수지도교사 1명에게는 교육감상이 수여됐다.

또한, 삼남학교와 대학에 진학하는 8명이 학생들에게는 직원들이 모금한 슬내장학금과 소년보호위원 전주소년원협의회(회장 황동현), 한국소년보호협회(회장 이종명), 전주제일MF 라이온스클럽(회장 이용선), 전북안전자회문화운동본부(본부장 허성)에서 총 28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고 신체장애인협의회(회장 고인식)은 졸업생 전원에게 각 80만원 상당의 인터넷 수강권(총 2,400만원 상당)을 지급했다. /김영태 기자



국토부 장관 비방 벽보 붙어

전주시내 한 버스정류장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방하는 벽보가 붙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36분경 전주 덕진구 금암동 한 버스정류장에 ‘김현미 장관을 처형하라’는 내용의 벽보가 붙었다.

벽보는 가로 30cm, 세로 50cm 크기로 버스정류장 유리벽면에 10장이 붙어 있었던 것으로 지나가던 한 시민이 이를 보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버스정류장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강석훈 기자

익산서 10대 여중생 추락

익산에서 10대 여중생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6일 오후 11시 13분경 익산 시내 한 아파트 14층에서 A모양(14)이 추락해 숨졌다.

사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는 A양을 즉시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A양은 이날 가족, 친구들과 함께 있다가 갑자기 베란다 밖으로 스스로 뛰어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양이 남자친구 문제로 부모와 갈등을 겪다 홑집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가족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강석훈 기자